

고린도전서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

성경: 고전 15:45하, 6:17, 2:9-12, 14-15, 10:3-4, 16-17, 12:12-13, 27

1. **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,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—엡 3:9, 14-19.**
 - A.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백성과 연합시키시어 그들과 한 실체가 되신다—엡 4:4-6.
 - B. 이러한 하나와 연합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님과 합하는 우리가 한 영이라고 말한다.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 한 영이 되었다.
 - C. 가장 높은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,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로 완전히 연합되어 한 생명과 한 생활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이다—요일 4:15, 요 15:4-5, 갈 2:20, 빌 1:19-21.

11. **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‘한 영’이라는 표현은 그 영이신 주님과 우리의 영의 연합을 가리킨다.**
 - A. 영, 곧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하여 이루어진 한 영은 주님의 영이자 우리의 영이다—롬 8:4, 고후 3:17, 고전 15:45하, 6:17.
 - B.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, 주님께 기도하는 것,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등 우리의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이 연합된 영 안에 있다—고전 1:9
 - C.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함축된 것들은 놀랍고도 그 범위가 광대하다.
 1. 주님과 한 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함축한다—요 15:4-5.
 2. 그분과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—롬 8:10, 골 3:4.
 3.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우리와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놀라운 한 실체라는 것을 계시한다—고전 12:12.
 4. 우리라는 완전한 인격 전체와 주님은 한 영이다—고전 6:17-20.

111. **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비밀과 깊이들은 두 영, 곧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다—고전 12:13, 4:21.**
 - A.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들을 두 영에 의해 계시하셨다—고전 2:9-12.
 - B. 이 두 영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기 위한 것이다.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을 먹고 그 영을 마신다—고전 10:3-4.
 - C.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—고전 2:14-15.

- IV. **주님과 한 영이 됨으로 우리는 주님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—고전 1:2, 24, 30, 2:8, 10, 3:11, 5:7-8, 10:3-4, 11:3, 12:12, 15:20, 47, 45.**
 - A.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을 누린다—고전 1:9.
 - B. 누구든지 주님과 한 영인 사람에게는 공급이 한량없다—고전 15:10.
 - C. 믿음의 영(고후 4:13)은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이 연합된 것이다. 우리는 이러한 영을 사용하여 우리가 주님께 대해 체험한 것들을 믿고 말해야 한다.

- V. **고린도전서 7장은 주님을 사랑하고, 이 땅에서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고,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하고, 주님과 하나 되고, 각 방면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, 하나님으로 만족하고, 하**

나눔께서 안배하신 모든 환경에 만족하는 한 사람의 영을 전달해 준다.

- A. 바울은 복종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영을 가졌다. 그는 그의 영 안에서 주님께 복종했고 그의 상황에 만족했다—고전 7:17-24.
- B.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그가 말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다.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7 장에는 육체 되심이라는 신약의 원칙의 본이 있다—고전 7:10, 12, 25, 40.
 - 1. 육체 되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어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시고 사람을 그분 자신과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다—요일 4:15.
 - 2.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과 하나 되시고, 사도들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과 함께 말한다—고전 6:17.
 - 3. 고린도전서 7장 25절과 40절에서 우리는 최고의 영성, 곧 주님과 완전히 하나이고 주님으로 완전히 적셔져서 심지어 자신의 의견까지도 주님의 생각을 표현하는 한 사람의 영성을 본다.

VI. 침례 받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 영과 연합된다—고전 12:13.

- A. 그 영 안에서 침례 받는 것은 연합의 시작이며 단 한 번에 완전히 이루어진다.
- B. 그 영을 마시는 것은 연합의 계속이며 영원토록 지속된다.

VII.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단체적인 그리스도, 몸-그리스도이다—고전 12:12.

- A. 몸-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모든 믿는 이들을 지체로 삼는 그분의 몸인 교회로 구성된다.
- B.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자 몸이시다—엡 4:15-16, 고전 12:12.
 - 1.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 안에서는 머리이시지만 우리 안으로 조성되실 때에는 몸이시다—골 1:18상, 3:4, 10-11, 2:19.
 - 2.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자 몸이시기 때문에, 개인적인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몸-그리스도이시다.
- C. 주님의 상에 있는 떡은 예수님의 물질적인 몸과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, 즉 단체적인 그리스도, 몸-그리스도를 모두 상징한다—고전 10:16-17.
- D. 몸-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충만히 누린 결과이다—고전 1:2, 30, 5:7-8, 10:3-4, 17, 12:12-13.

VIII. 단체적인 그리스도,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수단이다—엡 1:22-23, 고전 12:12-13, 27.

- A. 그리스도의 몸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움직이시기 위한 것이다—엡 4:16.
- B. 머리는 지금 몸을 통해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—계 5:6, 엡 1:22-23, 롬 12:4-5, 골 1:18상, 2:19, 3:15, 고전 12:12-13, 27.